

소련기행시집 『붉은 기』 연구

김태옥*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작품의 구성과 창작 배경
- III. 출발에서 귀환까지
 - 1. 시베리아에서 만난 조선의 편린들
 - 2. 소련의 심장 모스크바에서
 - 3. 귀향길에 오르며
- IV. 결론에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근대시사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자리한 시인 오장환을 조명함에 있어 창작의 목적을 명징하게 반영하는 작품이자, 소비에트 기행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전기 연구를 위한 핵심적인 텍스트로 작용하는 시집 『붉은 기』(1950) 분석을 통해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과 그곳에서의 행적을 고찰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된 오장환의 소련행과 그 결과의 산물인 『붉은 기』는 소련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인 감상과 북조선, 소련, 양국이 표방하는 정치 이념이 합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출발과 귀향이라는 원형구도, 즉 다시 처음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태의 작품 속에서 오장환은 본인이 생각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시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붉은 기』는 오장환의 개인 전기 연구뿐만 아니라 해방직후, 그리고 1948년과 1949년 사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건들의 단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주제어 : 오장환, 붉은 기, 전기, 이념, 소련, 모스크바, 시베리아

* 충북대학교 전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2018년은 오장환(1918-1951)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1988년 7월 19일 4차 해금조치와 더불어 오장환이 다시 대한민국의 독자 앞에 선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해금이후 충북 보은 회인면에는 복원된 오장환 생가와 함께 문학관이 들어섰고, 1996년에 출발한 오장환문학제는 2018년 어느덧 23회째를 맞이한다.

1990년대 초반 장영수, 박윤우, 김명원, 정운엽, 성기각, 김석규의 학위 논문과 몇 편의 논문에서 출발한 오장환과 그의 문학세계에 관한 연구는 30년이 지난 지금 박사 학위와 석사 학위 논문 각각 17편과 80편, 학술논문 160여 편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학문연구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향과 관심은 오장환 작품 세계가 갖는 깊이와 호소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적 사료와, 시, 산문, 평론 등의 발굴에 힘쓴 김학동의 『오장환 연구』(시문학사, 1990)와 최두석(창작과 비평사, 1989), 김재용(실천문학사, 2002), 김학동(국학자료원, 2003)의 『오장환 전집』은 오장환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문학 세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만큼이나 오장환을 수식하는 용어 또한 다채롭다. ‘서정시인’, ‘서정시의 등불’, ‘공상적 로맨티스트’, ‘환상과 직관의 시인’, ‘모더니즘적 리얼리스트’, ‘시대 현실에 대한 발화체적 저항시인’, ‘시단의 신세대’, ‘우리 서정시의 선수(選手)’¹⁾, ‘시의 황제’, ‘한국 근대시의 새 희망’, ‘탁류(濁流)의 시인’, ‘휴전선의 시인’, ‘월북 시인’, ‘금기의 작가’, ‘불우한 시인’, ‘비에의 시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²⁾ 시

1) 김광균, 오영식·유성호 엮, 『김광균 문학전집』, 소명출판, 2014, p.347. 오장환 시집 『헌사(獻詞)』 신간평에서 김광균이 오장환을 가리켜 한 표현(『문장』 1-8호 1939.9, p.188).

2) 이희준, 『오장환연구』, 『한국언어문학』 49, 한국언어문학회, 2002, pp.406-409; 황윤

인 서정주는 회고록에서 1930년대 신문 잡지계가 오장환을 ‘우리 시의 새 왕자(王者)’라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쓰기도 했다.³⁾

본 논문은 한국 근대시사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자리한 시인 오장환을 조명함에 있어 창작의 목적을 명징하게 반영하는 작품이자, 소비에트 기행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전기 연구를 위한 핵심적인 텍스트로 작용하는 『붉은 기』(1950) 분석을 통해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과 그곳에서의 행적, 그리고 시 속에 그려진 역사적 상황들의 단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중환, 박윤우, 김학동의 연구 등에서 『붉은 기』에 대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갖고 있다.⁴⁾ 본 논문은 『붉은 기』의 내용적 해석보다는 『붉은 기』가 창작된 배경을 살펴보고, 텍스트에 등장하는 시간과 장소, 시어들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다소 미흡한 오장환 시인의 소련 내에서의 전기와 당시의 역사적 사실 고증에 집중하고자 한다.⁵⁾

오장환에 관한 전기 연구는 전술한 연구들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월북 이후 오장환의 행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오장환 탄생 100주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⁶⁾ 청주 MBC가 창사 43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2013년

철, 『오장환의 시 연구』, 『우리말 글』 7, 우리말글학회, 1989, p.214; 김용직, 『열정과 행동 - 吳章煥』, 『한국현대시인연구 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517.

3) 서정주, 『서정주 문학 전집, 5권』, 일지사, 1972, p.117.

4) 『오장환 시 연구』(도중환, 2005), 『오장환 시집 『붉은 기』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에 대한 고찰』(박윤우, 2013), 『오장환 評傳』(김학동, 2004).

5) 본인이 직접 ‘기행시집’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집에서 서정적 자아와 오장환 사이의 관계를 일치시켜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6) 일본에서 귀국 후 중국 등지를 방랑한 것으로 추정되는 1940년 오장환의 행적 또한 명확하지 않지만 1940년에 쓴 오장환의 시 『江을 건너』(1940.7)와 『고향이 있어서』

10월 다큐멘터리 ‘시대의 증언자, 시인 오장환’을 방영하였지만,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소련 내에서의 오장환의 행적은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월북 이후 시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인 『붉은 기』는 월북 이후 오장환의 행적 일부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기능한다. 오장환 탄생 100주기와 해금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붉은 기』를 통해 오장환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고증해가는 작업은 오장환과 그의 시대, 오장환 시의 실체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⁷⁾

II. 작품의 구성과 창작 배경

1950년 5월 문화전선사에서 ‘소련기행시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행된 이 시집은 권두시 『붉은 기』를 제외하고 ‘씨비리 시편’(9편), ‘모스크바 시편’(4편), ‘살류트 시편’(6편) 총 3부 열 아홉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1940.12)에 예성강, 홍천강, 나타샤 페트로브나, 마우자(러시아인), 보드카 등의 단어들 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오장환이 지금의 북한지역과 러시아와의 국경일대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7) 저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러시아적십자사, 보트킨 병원과 보트킨 박물관, 1940년대 말에 발행된 러시아신문, 러시아인들을 통한 재러 북한대사관예의 자료 찾기를 비롯하여 북한에 정통한 러시아 학자들을 통해 오장환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소문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시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정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붉은 기』 시 텍스트, 이와 연관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오장환의 소련에서의 전기와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고증하고자 한다. 오장환의 소련 내에서의 행적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이 분야 연구를 위해 이를 각주를 통해 표시하였다.

시작(詩作) 시점	작품명	시편
1948.12	씨비리 차창	씨비리
1948.12	김유천 거리 - 하바로프스크의 즐거운 체류에서	씨비리
1948.12	변강당의 하룻밤 - 하바로프스크 크라이 콤 강사실에서	씨비리
1948.12	비행기 위에서	씨비리
1949.1	눈 속의 도시	씨비리
1949.1	씨비리 달밤	씨비리
1949.2	붉은 기	
1949.2	올리가 크니페르	살류트
1949.3	우리 대사관 지붕 위에는	살류트
1949.3	레닌 묘에서	모스크바
1949.3	붉은 표지의 시집	살류트
1949.3	김일성 장군 모스크바에 오시다	모스크바
1949.5.1	모스크바의 5·1절	모스크바
1949.5	살류트	살류트
1949.6	고리키 문화공원에서 - 어린 동생에게	살류트
1949.6	‘프라우다’	살류트
1949.7	스탈린께 드리는 노래	모스크바
1949.7	연가(連歌)	씨비리
(1949.8월경으로 추정)	씨비리 태양	씨비리
1949.8	크라스노야르스크	씨비리

위 표에서 보듯 유일하게 시 창작일이 등장하지 않는 『씨비리 태양』을 ‘가도 가도 끝없는 밀보리 이랑/정오의 태양이/한데 어우러져/이글거리는 들판!/누런 들판은/흙뻑 풍성한 들판’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작품의 시작(詩作) 시점을 시베리아의 한여름 8월경으로 가정한다면 12월과 3월, 그리고 작품이 없는 4월을 제외하고 『붉은 기』를 포함하여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주기적으로 2편의 시가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⁸⁾ 다른

8) 시베리아에서 밀보리가 익어 수확에 들어가는 시기는 대략 8, 9월경이다. 하지만 9월 이 시기상 가을에 해당하고, 지역에 따라 눈이 오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 묘사된 ‘한데 어우러져 이글거리는 들판’을 8월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1949년 4월로 표기된 시가 없고, 오장환이 5월 1일 노동절을 병원에서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아, 4월에 오장환의 건강이나 일신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작품이 12월과 3월에 창작되었다는 것은 이 두 달이 오장환의 소련 체류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다.

씨비리 시편의 작품들은 오장환 소련행의 시작과 북조선으로의 귀향 시점을 알려준다. 『씨비리 차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장환은 1948년 12월 열차편을 이용하여 하바롭스크에 도착한다. 모스크바 체류 시기에 마지막으로 작성한 시 『스탈린께 드리는 노래』가 1949년 7월이라는 점, 그리고 『연가』 속 내용 ‘지금은 유월 유두 한창때/밑보리 우거졌을/나의 고향아’에서 보는 것처럼⁹⁾ 오장환은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행 열차를 타고 7월 초에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사건과 장소, 시의 작성 시기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전개하겠으나, 오장환이 『병든 서울』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¹⁰⁾ 작품 속 일련의 사건들과 시작(詩作) 시점을 일치시키고 있는 태도는 오장환의 여러 작품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 사실이다.¹¹⁾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붉은 기』 창작 의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반드시 선행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조 시인 조운(曹雲)의 <『붉은 기』의 발문>은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9) 1949년 유월 유두는 양력 7월10일에 해당한다.

10) ‘일기처럼 날짜를 박아가며 써 나온 이 시편, <...> 여기 이 시집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에 충실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 똑바를 수 있을가를 찾기 위하여 **다만 시밖에는 쓸 줄 모르는 내가 울부짖고 느끼며 혹은 크게 결의를 맹세하려던 그날 그날을 조목조목 일기로 적은 것이 이 시편들이다.**’(시집 『병든 서울』의 <머리에>, 강조는 필자). 오장환, 김학동 편, 『오장환전집』, 국학자료원, 2003, p.722. 향후 해당 도서에서의 작품 인용은 본문 내에 페이지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11) 박운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박운우, 『오장환 시집 『붉은 기』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에 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40, 한중인문학회, 2013, p.75.).

장환이 소련에 다녀왔다.

“나는 언제나 한번 가보나!”하고 모두들 동경하는 소련에 다녀온 장환이 여장(旅裝)을 풀면서 우리들 앞에 선물로 우선 내 놓은 것이 이 시집이다.

장환의 소련행은 우리 공화국을 대표한 사절도 아니요, 문화 연구를 위한 시찰도 아니요, 호화로운 만유(漫遊)나 우정 시를 지으려고 간 것은 더욱 아니다.

우방의 **한 젊은 예술가에게까지도** 알뜰히 관심을 놓치지 않고 **위대하고도 자애로운 소련은** 우리들의 아끼는 **장환**, 이 젊은 시인의 병이 **다스리기 어려운 증세임을** 알자 **고쳐주려고 데려간 것이다.** 위대한 소련의 이 예외의 우우(優遇)와 **분**에 넘치는 **온정(溫情)에 장환은 병구(病軀)를 끌고 모스크바의 품에 안기었던 것이다.**¹²⁾(강조는 필자)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은 조운의 지적처럼 일차적으로 장환이 앓고 있던 신장병 치료를 위함이 크다. ‘남포 소련 적십자병원에서’라는 부제를 단 아래 시는 조운의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상냥한 여의사 이국의 손님은
밤사이 증세를 살필 제
말없이 펴 보이는 나의 ‘부끄와리’
‘하라쇼’
미소를 구슬같이 굴리며

그는 책장을 덮는다.
-평양에서 박사님을 뵈셔오리라
그래도 안되면
당신을 우리나라 소련까지도 가게 하여

12) 김학동, 『오장환 評傳』, 새문사, 2004, pp.321-322.

온전히 낮게 하리다.-

『남포병원 - 남포 소련 적십자병원에서』¹³⁾

결국, 북한에서도 완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련 적십자사에서는 시에서
언급한 바대로 오장환이 모스크바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찬란한 모스크바의

5·1절이여!

나는 병상에 누워 있으나

내 몸에 넘치는 힘

내 마음에 샘솟는 즐거움

오늘처럼 가득하기는

처음이구나

『모스크바의 5·1절』(1949.5.1. 모스크바시립볼킨병원에서)¹⁴⁾

삼팔선을 넘어 북으로 간 지 1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완치에 대
한 희망 섞인 기대를 안고 떠난 소련에서의 치료 과정을 그린 위 시는 행복
과 만족, 삶의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 소련이라는 새로운 치료 환경을 대하
는 이 같은 자세는 오장환이 월북 후 북에 있는 병원에서 체험한 감정과도
일치한다.

13) 소련 체류 시기에 창작된 이 시(1949.2월)가 『붉은 기』 작품 대열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이 소련 현지에서의 기행보다는 과거 북조선에서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
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14) 오장환은 이 시에서 자신이 입원한 병원을 볼킨 병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보트킨 병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 MBC가 제작한 ‘시대의 증언자, 시인
오장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보트킨 병원의 정식 명칭은 보트킨 시립
병원(Городск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имени С.П. Боткина)이다.

남조선에서는 무고한 인민이 테러단에게 모진 매를 맞고 팔다리를 분질러도 이 매맞은 사람은 병원에 누워 편안히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 이 자들이 미친개와 같이 큰 거리로 싸다니는 남조선에서 해방 전부터 앓던 필자는 신병을 치료할 대책조차 갖지 못한 채 1947년 8,9월 선풍 속에서 다시 모진 테러단의 밥이 되었다. 몇 해째 끄는 병중의 몸에 다시 온몸이 매에 맞아 먹구렁이 같이 부풀어 올랐다. 그래도 마음먹고 약 한번을 바르기는커녕 하루 하루의 잠자리를 애써 구하던 필자는 **그 후 북조선에 와서 비로소 아무런 근심이 없는 입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자에게 있어서 무한한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북조선에서의 입원생활은 필자에게 몸에 있는 병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하고 혁혁한 환경이 다시 필자의 마음속에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였던 석일(昔日)의 잔재(殘滓)까지를 깨끗이 씻어주었다.**(665-666, 강조는 필자)

위에 인용한 「남조선의 문화예술」(1948.1. 조선인민 출판사)에 실린 글을 근거로 도종환은 오장환의 월북 배경에는 아무런 근심 없이 입원생활을 하게 해 주는 곳이 북(北)이었다는 시인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¹⁵⁾

하지만, 오장환의 소련행이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오장환의 월북 배경에도 그와 동일한 이유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모스크바의 5·1절」에 등장하는 시구 ‘내 몸에 넘치는 힘/내 마음에 샘솟는 즐거움/오늘처럼 가득하기는/처음이구나’에서 보는 것처럼 신체적 변화 이외에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몸에 있는 질병 치료만을 위해 다른 세계를 찾았다’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오장환의 월북 사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에세-닌에 關하여>(1946.2.17.)에서 오장환은 예세닌의 「그래 이제는 결

15) 도종환, 『오장환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86-187.

정되었다. 돌아오는 일은 없다…(Да! Теперь решено. Без возврата…),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 저주받은 기타 소리에…(Пой же, пой. На проклятой гитаре)」, 「귀향(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세 편의 시에 대해 ‘나는 이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여 불렀는가’, ‘이 노래 때문에 나는 얼마나 울은 것인가’라고 쓰고 있다(556-558). 『에세-닌詩集』(1946)에 실린 시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에세이를 통해서도 발견되는 예세닌 시에 대한 오장환의 깊은 공감은 개성의 차원을 넘어 세계를 대하는 오장환의 시대 의식이 예세닌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오장환이 월북 직후 쓴 「二月의 노래」에는 시대적 상황 변화, 그리고 새 시대로의 전환을 감지한 시인의 감상이 묘사되어 있다.

나는 지금	봄이여! 찬란한 봄이여!
얼음장이 터지고	너는 어느 곳보다도 앞서
밀려 나가는	우리의 힘찬 노래를 가져왔구나.
대동강 기슭에 서있다.	

시인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2월 대동강 기슭에서 해방 이후 북조선 사회에서 전개될 새 시대의 희망과 비전을 감지하며 이를 노래하고 있다. 시의 시작과 함께 마지막 종결부에 2회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나는 지금/얼음장이 터지고/밀려 나가는/대동강 기슭에 서있다’라는 표현은 역사적 격변의 경계에 선 시인의 시대 인식과 시인의 결연

16) 김동석은 ‘혁명기의 시인은 어느 때고 어느 나라에서고 불행한 인간이다. <…> 장환이 러시아어를 모르면서도 예세닌에 대하여 생리적인 공감을 느끼고 역까지 하였다는 것은 장환 또한 예세닌과 꼭 같은 혁명기의 시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오장환 시인과 예세닌, 그리고 시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한다(김동석, 이희환 역, 『김동석 비평 선집』, 현대문학, 2010, p.220.).

한 소명의식을 표명한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 경계와 변화의 앞에서 시인은 누구보다 먼저 이른 봄을 맞이하고 있다.

완전한 언론의 자유!
이것은 맑은 겨울이다.
이곳에
티 없는 인민의 의사는 비치고
구김없는 생활
그는 우리 앞에
주마등으로 달린다. (『북조선이여』, 335)

월북 이후 북조선을 노래한 최초의 작품인 위 시에서 오장환은 자신이 갈망한 정치적 자유와 진정한 신문학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표현한다.¹⁷⁾ 북녘의 자연은 물론, 노동자와 예술가들의 삶, 모든 사회 현실은 오장환이 꿈에 그리던 이상 세계에 다를 바 없었다. 오장환에게 월북은 쉬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긴 겨울의 끝과 다가올 봄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시인의 정체성 찾기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오장환에게 있어 신체의 질병 치료만큼 정치적·문학적 이념의 선택 또한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었다.¹⁸⁾

17) 데뷔 직후부터 꾸준히 문학, 시인의 사명에 대해 고민하였던 오장환은 1937년 『조선일보』에 실린 <文壇의 破壞와 참다운 新文學>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진정한 신문학이라면 형식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선 우리의 정상한 생활에서 합치될 수 없는 문단을 바셔버리고 진실로 인간에서 입각한 문학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문학의 길일 것이다. <…> 조선에 있어 새로운 문학이 수입된 지 30년 가차운 동안 어느 것이 진정한 신문학이었냐고 한다면 그것은 『백조』 시대의 신경향파에서 ‘카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룹이 가장 새로운 문학에 접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 내가 이제부터 쓰려는 문학은 나의 의무를 위한 문학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진정한 신문학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길을 밟으려 한다.(610)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 또한 월북행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붉은 기』의 권두시 「붉은 기」에는 두 세계 사이의 지리적 경계인 두만강을 건너는 서정적 자아의 감상이 묘사되어 있다.

내	새 역사
뒤끓는 가슴이	찬란히
한 이름의 희망 넘치는 꿈으로	꽃 피어오르는
국경에 가차왔을 때	공산주의 행복의 동산이여!
<…>	
두만강 건너	나는 노래 부른다
누구보다 먼저 손 저어준 것은	퍼덕이는 너의 마음을
그대 붉은 기!	뜨거운 가슴
<…>	다함 없는 사랑으로…

(173-179)

무대가 대동강에서 두만강으로 바뀌었을 뿐 남에서 북을 향했을 때의 서정적 자아와 북에서 소련을 향하는 화자 사이의 감정은 동일하다. 오장환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북조선과 소련에서는 얼음이 녹고, 찬란한 봄이 오며, 꽃이 피고, 행복의 동산이 열리고 있다. ‘잔혹’, ‘반대’, ‘음모’, ‘얼음장’, ‘짓밟히던’과 같이 「二月의 노래」에 등장하였던 단어들은 「붉은 기」에서 ‘힘찬 평화의 서울’, ‘공산주의 행복의 동산’, ‘이 나라 찾아온/내 가슴/높은 하늘에 퍼덕이는/너와 같으니’라는 시구들로 대체되어 있다. 그러한 어휘상의 차이는 「二月의 노래」가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탈출을 노래한 것

18) 홍성희도 오장환의 월북사유에 대해 시인의 정치적·문학적 선택을 연결 짓고 있다 (홍성희, 「‘이념’과 ‘시’의 이율배반과 월북 시인 오장환」,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pp.65-112.).

임에 반해 『붉은 기』는 변방의 새 시대에서 공산주의 종주국 수도로의 방문과 답사를 그린 작품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치료를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오장환이 주저 없이 소련행에 동의하였던 것은 변방의 북조선에서 공산주의 메카인 소련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함이었기도 하다. 상상 속에 존재하던 소련에 대한 단상들을 기행(紀行)이라는 수단을 통해 총체적인 실체 속에서 완성하려 했던 오장환은 『붉은 기』속에서 신체와 정신 모두가 치료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¹⁹⁾

조운의 발문에는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다. ‘우방의 한 젊은 예술가에게까지도 알뜰히 관심을 놓치지 않고 위대하고도 자애로운 소련은 우리들의 아끼는 장환, 이 젊은 시인의 병이 다스리기 어려운 증세임을 알자 고쳐주려고 데려간 것이다’에서처럼 오장환의 치료와 소련행에 소련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소련 정부의 지원 없이 오장환의 소련행은 성사될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2천6백여만 명의 자국민을 잃은 소련이 우방의 ‘한’ 젊은 예술가에 불과한 오장환을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초청하여 반년 가까이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다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홍성희가 ‘오장환이 소련을 바라보고 언어화하는 방식이 해방기 ‘방소사절단’이 소련을 보고 경험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²⁰⁾

해방 후 소련의 대조선 정책의 주된 기조는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 수립이었으며 이는 국가 이익, 이데올로기, 남북한 정세, 미소관계, 주민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였다. 그러한 관계형성을 위해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도 소련은 미국이 사용하던 ‘신탁통치

19) 임지연도 『오장환 시에 나타난 ‘병든 몸’의 의미와 윤리적 신체성』(『批評文學』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pp.402-403.)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0) 홍성희, 앞의 글, p.107.

(trusteeship)’라는 용어대신 ‘후견(오페까 опека)’이란 단어를 써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²¹⁾ 조선에 대한 소련의 이해관계만큼 북조선 또한 정치·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절실히 원하였다. 해방직후 설치된 조소문화협회(朝蘇文化協會)는 북조선과 소련 양자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소련군정의 긍정적 이미지를 북조선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소문화협회 위원장 이기영을 비롯하여 이강국, 이찬, 허민, 이태준 등 당시 북에 있었던 내로라하는 인물들은 소련 문협위원장의 공식초청을 받아 1946년 8월 10일 ‘제1차 방소사절단(訪蘇使節團)’ 행렬에 참여하였다. 그 해 11월 하순경에 귀국한 이들은 소련기행과 관련된 글을 언론과 잡지에 적극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북조선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²²⁾ 이태준은 자신을 포함한 총 27인의 100여일 가까운 소련 답사를 기록한 수기 『소련기행』(1947년 5월)에서 당시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대외관계가 정궤(正軌)에 오르면 어느 나라보다 중국과 소련은 한번 가보고 싶었다. 중국은 우리 문화의 과거와 연고 깊은 나라요 소련은 우리 문화의 오늘과 장래에 지대한 관계를 가질 사회이기 때문이다. <...> 나는 참으로 황홀한 수 개월이었다. 인간의 넓고 악한 모든 것은 사라졌고 새 사람들의 새 생활, 새 관습 새 문화의 새 세계였다.²³⁾

21) 기광서,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스티코프의 활동』, 『중소연구』 26,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p.162.

22) 임유경, 『‘오페까’와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p.234.

23) 이태준, 『이태준 문학전집4 소련기행·농토·먼지』, 깊은샘, 2001, pp.11-12; 오장환과 이태준이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함께 활동했고(한국현대문학자료총서편집부, 『1946년도 문학상 심사경위 및 결정이유』, 『韓國現代文學資料叢書 17』, 1987, pp.492-493; 『문학』 3호, 1947.4.), 이태준이 오장환보다 미리 월북을 택하여 소련을 경험했다는

“나는 언제나 한번 가보나!”하고 모두들 동경하는 소련에 다녀온 장환'이라고 한 조운의 표현과 같이 이기봉 또한 소련을 대하는 당시 북조선 지식인들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어떻든 당시 정치·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소련에 추종하지 않고서는, 또 소련의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의 제일 큰 소망은 소련 견학여행이었다. 그것은 당시 북한 학생들의 소련 유학 희망열기 이상의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소련에서 배우자는 사상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었다. 작가 예술인들은 하다 못해 ‘조·쏘문화협회’의 기관지 『조·쏘문화』에 자신의 글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알 정도였다. 당시 작가 예술인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조·쏘문화』에 자신의 글이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²⁴⁾

오장환이 소련에 체류할 당시에 발표된 글이기는 하지만 민병균 역시 <쑸베트 시문학을 섭취함에 있어서 경험과 교훈>(노동신문, 1949.4.49.)에서 ‘그러한 숭고한 사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시인들은 쑸베트 시인들이 피로 개척한 싸움으로 쌓아올린 교훈을 올바르게 섭취하여야 한다’²⁵⁾고 말함으로써 당시 북조선 사회에 만연해 있던 소련 바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장환이 모스크바에서 방문했던 장소 역시 붉은 광장, 역사박물관, 지하철, 병원, 모스크바예술극장, 레닌 묘, 고리키 공원 등 1차 방소사절단의 방문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오장환의 소련행은 당시 북조선에 유행했던 소련견학에 대한 북조선 문인들의 사회적 분위기와 유행의 한 단면을

사실 등에서 두 인물 사이의 관계 및 이태준의 이 작품이 오장환에게 미쳤을 영향력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다.

24) 김웅교, 『이찬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7, pp.188-189.

25)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 자료집(이북편/1945~1950)』, 태학사, 1993, p.383.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조선과 소련 양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그러한 결과의 산물인 『붉은 기』는 소련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인 감상과 소련, 북조선 양국이 표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합치되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야 했다.

Ⅲ. 출발에서 귀환까지

1. 시베리아에서 만난 조선의 편린들

오장환의 모스크바 도착은 일반적으로 1월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²⁷⁾ 『붉은 기』에 등장하는 장소와 방문 시점이 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실제 모스크바 도착은 1949년 1월이 아닌 2월경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창작 시점이 1949년 1월로 표시된 「씨비리 달밤」과 「눈 속의 도시」에서 화자가 시베리아 어느 주택가 건물 내에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른 새벽 건물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나²⁸⁾ 1949년 2월에 썼다고 표기된 「붉은 기」에

26) 오장환의 소련행이 초청을 한 국가와 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북조선이 오장환에게 공식적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나도 오늘은/우리 공화국 여권을/가슴에 지닌/자랑스런 젊은이. 「비행기 위에서」, 191).

27) 2012년 9월 6일 국민일보 「[문학사의 풍경] 시인 오장환과 모스크바 볼킨병원」이란 기사에서도 오장환의 입원기간을 1949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추정하고, 오장환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번 꼴로 신장투석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신장투석이 없는 날에는 그가 모스크바 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했다고 쓰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15703>(검색일: 2017.11.10.)

28) 행복한 동화 속에/사는 듯/나는 두꺼운 창 밖/넓은 길을 내다본다 <...> 이옥고/비스듬 건너편/전구공장에서 길게/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모스크바 도착장면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들이 그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준다.²⁹⁾

오장환이 소련에서 창작한 첫 번째 시로 추정되는 「씨비리 차창」은 함께 탑승했던 소련군 병사들이 극동지역의 한 역에서 하차하는 장면을 관찰자 입장에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이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은 이 시가 소련군의 북한 철수, 즉 한반도 철군과 소련 병사들의 실제 귀향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역이나
지금 이 급행차가
잠시 쉬었다
떠나는 곳은……

<…>

그대들은
그대들이 해방한
우리 조선이
이제 막 새 나라로
튼튼히
나감을 보고
그대들의 조국으로 돌아왔는가!

29) 오장환이 열차를 이용하여 하바롭스크에 도착하여 32인승 비행기를 타고 하바롭스크를 출발(「비행기 위에서」, 12월)하기는 하지만 이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가 모스크바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붉은 기」에서 시인은 자신이 두만강을 건넌을 때 자신을 제일 먼저 반긴 것이 소비에트의 붉은 기였다고 말하면서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도 하늘 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 역시 붉은 기였다고 말하고 있는데(내/뜨거운 흥분이/기창(機窓)을 부비며 이 나라 수도(首都)/힘찬 평화의 서울인/모스크바를 살필 제/나는 여기서도/제일 먼저 보았다), 이 시를 썼다고 표기된 일자가 1949년 2월이다. 따라서 오장환이 시베리아의 어느 도시에서 일정기간 체류 혹은 철도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항공기를 이용하여 2월경에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눈 속의 도시」에서는 시베리아의 다른 대도시 스페르들롭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가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오장환이 실제 치료를 한 기간은 2월에서 7월 10일 사이 5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오장환은 모스크바 도착 전 이미 눈과 바람뿐인 광활한 시베리아 황무지 위에 사회주의 왕국이 개척되고 건설되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이를 소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이곳에 내리는	그대들
몇 소대, 몇 분대의 병사들	자랑 속에 고향 찾으먼
등에는 저마다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가벼운 짐 꾸리고	그곳 사람들
멀어지는 차창에	포옹하는 그대들의 품에서
손을 씻는다.	낮설은 훈패를 보리!

그대들 내리는구나	아 그것은
꽤 채인	새 나라의 우리들이
차 중의 여러 날을	보내준
원산, 청진, 아오지, 내 사랑하는	조선해방기념장!
우리 조국에서 떠난 그대들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정녕 이곳에서 내리었구나	곳곳에서 속삭여지리

1948년 5월 7일, 제1극동전선 소련 제25군(25-ая армия Перв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사령관 스티코프(Т.Ф. Штыков)는 소련군이 미군과 동시에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김일성에게 밝혔다. 이후 소련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완료되자마자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48년 12월 25일에 철군을 완료하였다.³⁰⁾ 시인 민병균의 『영원한 친선-쏘련군환송기념시집』(1949)에 발표한 『歡送의 노래』에서는 떠나는 소련 병사들을 역에서 환송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장환의 이 시는 북에서 출발한 그 소련군 병사들이 입국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지는 귀향 장면을 그리고 있다. 오장환이 표현한 ‘낮설은 훈패’는

30) 1948년 12월 31일자 프라우다 신문은, 동년 12월 25일자로 북조선에서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소련의 관영 통신인 타스통신이 위임받았다는 기사를 통해 소련군의 완전 철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지수, 『소련군 철군 과정 연구-시론』, 『사회과학논총』 26,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pp.121-126.

당시 북조선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해방한 주체라고 판단한 소비에트 장교와 병사, 특히 제1극동전선 25군 사령부 소속 장병들을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철군 직전의 장병들에게 수여되었던 메달을 가리킨다. 메달의 앞면에는 평양 모란봉에 있는 해방탑과 ‘해방’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조선 1945.8.15.’라는 글과 날짜가 적혀 있다.³¹⁾



북조선에서 소련군 병사들에게 수여한 해방 기념 메달

함경남도 정치보위부에서 근무하였던 김석형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1948년 11월 30일 스티코프의 철군 마지막 열차편’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이지수는 소련군 철수가 12월 25일이 아닌 12월 이전에 완료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장하는데,³³⁾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오장환의 이 시는 철군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소련 땅에서 고향을 향해 흩어지는 소련 장

31) Иванов A.Ю. Особен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рактовк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Красной армией, Корея: 70 лет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М.: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уки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15, p.162.

32) <https://www.ay-company.ru/za-osvobozhdenie-korei> (검색일: 2018.01.17.)

33) 이지수, 앞의 글, pp.127-129.

병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조국 땅을 찾아 귀향하는 소련군 병사들의 가슴에 지난날 자신들의 행적을 기리고 찬양할 훈장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오장환은 소련 도착과 함께 향후 완성될 『붉은 기』속 작품들을 씨비리 시편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채워가고 있다.

시 「김유천 거리」에는 ‘하바로프스크의 즐거운 체류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오장환은 김유천 거리를 ‘낮선 거리 그러나 반가운 이 거리’라고 표현하면서 김유천과 같은 동포와 민족이라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³⁵⁾ 1900년생인 김유천(본명 김유정)은 소련군 최일선 극동특수군 자바이칼 36보병사단 108벨로레츠 사격부대 제7사격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소련군 소대장 콘스탄틴 자파린(К.Д. Запарин)과 함께 1929년 10월 2일 만주소재 중동철도(동청철도)의 중소무력분쟁에 참전하였다 전사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공훈으로 소련군의 전세가 호전되자, 전쟁이 끝난 후 부대장은 ‘공산당원과 콤포물 요원들은 노동자·농민국가를 방위하는 일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소대장 김유천과 자파린은 이 과업을 위해 자신의 혁명의식의 전 격정을 바쳤다.’고 기록하며 이들의 업적을 기렸다.³⁶⁾ 오장

34) 소련군 철수 이후에도 3천명 가까이 이르는 군사고문단은 북조선에 상주하였다. 안문석, 『북한 현대사 산책1』, 인물과 사상사, 2016, p.288.

35) 하바롭스크는 1936년부터 포석 조명희(1894~1938)가 소련작가동맹 원동지부 조선분과에서 일하면서 1936년부터 거주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태준이 소련기행 중 우수리스크와 모스크바에서 간절히 찾기 희망하였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였던 조명희의 흔적이 있는 곳이다.

36) 러시아 애국출판사(Издательство Патриот)가 출판한 10권짜리 『Книга Памяти (기억의 책)』에서는 김유천의 출생을 1904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김유천은 연해주 수이푼지역의 차피고우(Чашигоу)에서 태어나 러시아 내전시기에 빨치산 연합부대장 김경천의 부하로 있으면서 일본과 백군에 맞서 싸웠다. 1922년 10월25일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완전 철수하고 러시아 내전이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나자 김유천은 소련군에 편입, 근무하면서 소련공산당원이 되었다. 이후 중위로 승진하여 중소무력분쟁에 참여하였다. 허만위, 『역사연구: 하바로프스크의 김유천거리에 얽힌 역사』,

환은 이 시에서 ‘김유천! 김유천! <…> 빛나는 그 이름/모두가 모두가 그 대 뒤를 따르려는/이 나라의/우리 겨레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소련에서 이름을 남기고 후대까지 영원토록 기억되는 인물을 모델로 자신의 정치·문학적 사명의식을 다진다. 12월에 창작된 작품이 많다는 것은 소련에 입성한 오장환의 벽찬 감격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시인이 여정 중에 처한 상황·시간·장소가 일련의 고리들로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소련의 심장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시편으로 분리된 작품들이 스탈린, 김일성, 노동절, 레닌 묘 등과 같이 주로 정치적 인물과 행사,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면, 살류트 시편에는 올가 크니페르, 네크라소프, 고리키, 신문 프라우다와 같은 문학, 예술, 언론과 관련된 인물 및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³⁷⁾ 창작 시기가 2월로 표기된 정치색 강한 권두시 『붉은 기』를 모스크바 시편에 포함하면, 모스크바 시편과 살류트 시편의 작품이 2월과 5월에 각각 한 편씩, 3월에 두 편씩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류트 시편’에 포함된 『우리 대사관 지붕 위에는』과 『살류트』의 내용이 문학, 예술보다는 정치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이를 ‘살류트 시편’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오장환은 자신이 모스크바 체류 시기에 창작한 작품들에서 예술과 정치, 두 테마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붉은 기』 아래서 조화·통합되는 상황을 그림으로써 진정한 신문학으로 가는 길이 시대 및 정치와 결코 분리될

『北韓』 323, 북한연구소, 1998, pp.94-95.

37) 러시아어 살류트(Салют)는 ‘축포, 불꽃놀이’를 뜻한다.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갈매기> 수를 드린	내일 모래가
기인 막이 열리고	일혼아홉인,
올리가 크니페르가 그대가 나오면	크니페르 체호프는
관중들의 열광한 박수는	지금도 무대 위에 서면
끊일 줄을 모른다	네희류도프의 상냥한 아주머니

MXAT의 성장과
MXAT의 광영을
한몸에 지니고
오늘도
당신은 무대에 선다

「올리가 크니페르」

모스크바 도착 직후 오장환은 1차 방소사절단도 방문했던 고리키 모스크바예술극장(MXAT)을 찾아 연극을 관람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예술극장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안톤 체호프의 부인 올가 크니페르 체호바(О.Л. Книппер-Чехова, 1868~1959)는 1949년 2월 3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이란 작품으로 이 무대에 섰다. 그녀는 여기서 네흐류도프의 이모 차르스카야(Чарская) 역을 맡았는데, 시에 언급된 것과 달리 크니페르 체호바의 당시 나이는 여든 하나였다. 크니페르 체호바의 생전 마지막 연기가 1950년 3월 15일 동일 작품, 동일 배역이라고 할 때, 오장환이 그 해 2월에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관람한 것은 크니페르 체호바가 공연한 마지막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장환은 『부활』의 주인공인 카뮈사와 네흐류도프보다 19세기 말, 20세기 상반기 소련 연극의 살아있는 전설로 남은 소련 인민배우(народная артистка СССР) 크

짜가 1948년 10월 16일라는 점에 근거하여 소련에도 이미 1948년 10월경에 북한 대사관이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 3·1절을 회상하며 친일파들을 몰아내고 해방의 기쁨을 안겨다준 소련에서 이제는 어엿한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 대사관 지붕 위에 휘날리는 조국의 깃발을 바라보며 오장환은 벅찬 감동을 표현한다. 그러한 흥분과 감격은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일성을 환영하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조소 양국의 깃발

휘날리는

모스크바에

우리의 장군은 오셨다

당신을 맞이하는

역두에

붉은 친위대의 사열은 씩씩하고

그들이 주악하는

우리의 애국가는 우렁차도다

<…>

이른봄 모스크바의

하늘에

조선과 소비에트의 깃발

찬란히 휘날리는

3월 17일

「김일성 장군 모스크바에 오시다」

1948년 정부 수립 작업이 마무리되자 김일성은 부수상 박헌영, 홍명희,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상업상 장시우, 교육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등과 함께 1949년 2월 22일 평양을 출발하여 소련 길에 오른다. 김일성 일행은 비행기를 타고 현재의 우수리스크인 보로실로프에 도착하였으며 거기서부터는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3월 3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3월 5일 김일성은 스탈린과 회담을 하고, 3월 17일 조소경제문화협정 체결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경제·문화적 지원을 약속받는다.³⁸⁾ 소련의 수

도에서 자국의 지도자를 지켜보고, 그가 스탈린과의 협상을 통해 조국의 인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받았을 때, 이를 지켜보는 오장환의 감격은 헤아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오장환은 역두에서 김일성과 그의 일행들을 맞이하였는데 그 무리엔 오장환에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시적 영감의 원천이 되는 박헌영 선생’도³⁹⁾ 포함되어 있었다. 조국의 정치 지도자와 시적 영감의 원천인 뮤즈를 이국땅에서 마주하는 오장환에게 이는 시 속 표현처럼 아직 완전히 찾아오지 않은 모스크바의 봄을 재촉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다분히 낭만주의적 감상에 함몰된 오장환은 1949년 3월 김일성 일행의 방문이 향후 조국의 앞날에 어떠한 운명을 가져다줄지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자서전을 통해 스탈린을 만난 김일성이 남침 계획을 밝히며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한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4월 7일 평양에 돌아온 김일성이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소련 방문 결과를 보고하며 조소경제문화협정을 통해 ‘국토완정의 투쟁에 거대한 힘을 얻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이 1949년 3월 김일성의 소련 방문은 그 이듬해 발생한 6·25 동란에 커다란 비극적 발판을 제공하였다.⁴⁰⁾ 낙관과 희망으로 가득한 이 작품 이면에 앞으로 발생할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적 사건으로 점철될 장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시대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작품은 민족 차원에서가 아닌 앞으로 닥칠 오장환 개인의 비극과 연관되어 있다.

38) 안문석, 『북한 현대사 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 pp.312-315.

39) 오장환, 『시적 영감의 원천인 박헌영 선생』(717).

40) 안문석, 앞의 글, pp.312-315.

아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르크스 레닌의 당을 본받는
 우리 당
 우리 조선 인민의 선봉인
 노동당에 몸을 바치어
 빛나는 5·1절을 맞음이
 이미 세 번째!

『모스크바의 5·1절』

5월 1일 노동절의 기쁨을 노래한 이 작품에서 오장환은 이번 노동절이 자신이 노동당에 몸담은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라고 고백하면서 병상에 있으면서까지 노동절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다.⁴¹⁾ 1946년 2월에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의 핵심 멤버로, 그리고 남조선문화단체총연맹 문화공작단 부산·경남지역 부대장으로 활약하던 오장환은 <조선문학가동맹 위원명부>에 속했던 임화, 이태준, 이용악 등과 함께 1946년 11월 설립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지속하였다.⁴²⁾ 오장환이 박헌영을 뮤즈로 여기는 것 또한 그의 남로당 가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장환은 자신이 ‘조선 인민의 선봉’인 노동당에 가입하여 ‘빛나는 5·1절’을 ‘세 번째’로 맞이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지만, 월북을 택했던 많은 작가들의 그것처럼 오장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남로당 가입과 남로당에서의 이력은 시인이 소련에서 북조선으로 귀국한

41) 노동절을 노래한 시로는 『나사는 곳』에 실린 『勝利의 날』이 있다. 1947년 5월 1일 노동절의 모습을 그린 이 시에서 오장환은 조선 민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격양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42) 『문학』 1호(1946.7); 한국현대문학자료총서편집부, 『韓國現代文學資料叢書 17』, 1987, p.441.

직후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몇 년 후 북조선에서 오장환이 숙청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⁴³⁾ 정치 이데올로기와 진정한 문학의 길 사이에 궁극적인 합일점을 찾아 거기에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 청년에게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었던 해방 이후 남과 북의 시대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 어느 쪽에서도 동의와 이해를 받지 못하는 불행했던 시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3. 귀향길에 오르며

언급한 바와 같이 모스크바 시편에 실린 마지막 작품 「스탈린께 드리는 노래」(1949. 7)와 씨비리 시편에 유월 유두라는 시구가 등장하는 「연가」(1949. 7)를 바탕으로 오장환이 모스크바를 떠난 시기는 7월 초로 추정된다.

43) 김재용 편, 『오장환 전집』, 실천문학, 2002, p.632. 6.25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시작된 북한 내 권력투쟁은 3차부터 5차까지 세 차례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김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안계, 소련계, 그리고 남로당계 몰락의 시초를 가져왔다. 김무정의 철직을 가져온 3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시작된 남로당 계열의 몰락은 이후 북조선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를 의제로 내건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으며, 1953년 8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에서 남로당 출신과 그 관련자들은 출당조치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오성호, 「임화의 월북 후 활동과 숙청」, 『현대문학의 연구』 21,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pp.498-499.). 카프의 이론과 창작을 이끌었던 임화가 월북 후 북한 문단에서 기피 대상이 된 배경에도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우대식 또한 1951년 전쟁기간 중 신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오장환이 만약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기절적으로나 그가 남겨놓은 작품의 성격으로 보아 남로당과 함께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우대식, 「해방 후 월북 시인의 행방」, 『한국문학과 예술』 12,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p.90, 103.).

스탈린이시여!	오래니 막혔던 가슴 풀고
당신께 드리는 나의 노래는	아 오늘은
울창한 수림 속	아름다운 모국어 빛나는 제 나라 글로
작은 새의 노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인민 앞에 불러집니다 ⁴⁴⁾
<...>	『스탈린께 드리는 노래』

차가 닿는 흙 앞	산과일이며 꽃다발 가져오는
넓은 뜰에는	두메 아이들
아담스런 화단이 가꾸어지고	비석 앞에 말없이 고개 숙이는
그 앞에는 희디희 돌비석 두 그루	이방(異邦) 길손에게 한 아름
나란히 서서 있도다	꽃뭉치를 내어밀으니
<...>	

-1898년 레닌	마음속에 타는 불 손에 들은 꽃
-1943년 스탈린	들풀의 향기도 온몸에 배이는
씨비리에 유형되실 때	씨비리 한적한 역에
이곳을 지나가시다	내 끝없이 가득한 마음
<...>	다시금 다시금
	당신들의 비석 앞에 다가서노라
	『크라스노야르스크』

44) 『스탈린께 드리는 노래』에 등장하는 ‘오래니 막혔던 가슴 풀고/아 오늘은/아름다운 모국어 빛나는 제 나라 글로/사랑하는 인민 앞에 불러집니다’는 시적 표현일 수도 있으나, 오장환이 귀국 전 자신을 보살펴준 소련과 소련 인민들 앞에 낭독이나 연설과 같은 실제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태준을 비롯한 제1차 방소사절단 일행은 소련체류 기간 동안 외국출판부 조선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동식(金東植)의 도움을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조선을 떠나 소련에서 성장한 김동식은 방소사절단 일행의 통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이태준, 『이태준 문학전집4 소련기행·농토·먼지』, 깊은샘, 2001, pp.47-48.) 오장환 또한 모스크바 체류 시기에 김동식이란 인물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작품과 조국을 향한 귀향길에 올라 마지막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오장환은 본인의 소련행 목적과 감회를 읊고 있다. 『붉은 기』에는 총 27회에 걸쳐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노래라는 단어는 오장환이 초기 작품에서부터 8·15해방, 그리고 월북과 소련행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시의 주제이기도 하다. 노래의 대상과 주제 찾기는 오장환에게 있어 진정한 시를 향한 정체성 찾기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8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래 부른 시인들이여, 그대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 새 사람이여 나오라. <…> 글고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오고 **진정 노래하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때에 써진 것이 아니라면 이왕에 붓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중대한 현실에서 아까운 지면을 새 사람들에게 양보하라. (『시단의 회고와 전망』, 『중앙신문』 1945.12.28. 590-591, 강조는 필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집에 포함된 27번의 노래라는 단어 중에 16회에 걸쳐 반복·사용되고 있는 「스탈린께 드리는 노래」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를 통해 ‘인류의 양심을 춤추게’ 하고, ‘세계 인민에게 평화와 자유’를 안겨다 준 스탈린에 대한 감사와 찬사로 가득하다. 스탈린의 그러한 업적은 오장환 개인의 ‘노래’와 세계인의 ‘합창’을 가능케 해주었고, 이는 모스크바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향하는 시점에서 오장환이 그토록 염원하던 노래의 대상과 정체성을 마침내 발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오장환은 『붉은 기』의 다른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공간에 대한 정확한 사실묘사와는 달리 해당 장소를 부정확하게 묘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철도 박물관에 따르면 1940년

대 말 해당 역에는 레닌과 스탈린을 동시에 기억할만한 표시, 문구가 삽입된 돌비석과 유사한 기념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물관이 제공한 이듬해 1950년에 찍은 사진에도 레닌의 동상만이 서 있을 뿐이다.⁴⁵⁾



크라스노야르스크 역(1950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역은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골풍의 작은 역이라기보다는 시베리아의 다른 역들에 비해 규모가 제법 있는 역이기도 하다. 『씨비리 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귀향길에 오르는 마지막 과정에 쓴 이 작품에서 오장환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 끝없이 가득한 마음/다시금 다시금/당신들의 비석 앞에 다가서노라’라는 표현에는 사회주의 왕국 소련을 떠나는 젊은 시인의 안타깝고 아쉬운 소회, 레닌과 스탈린이 이룩한 체제와 문화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픈 간절한 시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출발과 귀향이라는 원형구도, 즉 다시 처음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태의 작품 속에서 오장환은 본인이 생각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시의

45) 크라스노야르스크 철도박물관 관리자와의 서신교환(2018.01.18.). 레닌이 시베리아에 유형당해 크라스노야르스크를 거쳐 간 것도 1898년이 아닌 1897년이다. 사진제공: 크라스노야르스크 철도박물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에 대신하여

장환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은 6.25 동란 중이다. 동생 익균이 납치되어 난가(亂家)가 된 계동 집에 침거하고 있던 어느 날 ‘광군이 있냐’하는 소리가 들려 때문에 나가 보니 장환이가 웃고 서 있었다. 북에서 온 사나이에 앞서 반가운 생각에 넘쳐 사랑방으로 들어오라 하여 그날 한나절을 함께 지냈다. 점심때가 되어 집에 있던 좁쌀밥과 깍두기를 놓고 사이다 병에 든 소주 한 병을 돌이서 마시고 차가운 방에 눕더니 취기가 돌면서부터 이북에서 지낸 몇 해가 꿈쩍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임화 일당이 월북하기 전에 이북에 간 이기영(李箕永), 송영(宋影), 박세영(朴世永)을 중심한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 이빨하나 안 들어가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사사건건 중상모략하여 어느 새 요 감시인(要監視人)이 되어 보위부 사람들이 조석으로 들러 일보(日報)를 받는 등 감옥살이를 하다가 왔다면 주머니에서 얇은 책 하나를 꺼내 나에게 주었다. 『붉은 깃발』이라는 시집인데 몇 페이지 훑어보다가 “이것도 시라고 썼느냐”하고 방바닥에 던졌더니 장환이 얼굴이 붉어지며 무색해하였다.⁴⁶⁾

오장환의 월북과 『붉은 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그 어떠한 평가와 해석보다 김광균 회고록 속 ‘장환이 얼굴이 붉어지며 무색해하였다’라는 표현은 오장환이 『붉은 기』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대에 대한 참예한 자의식을 갖고 근대의 부정적 징후를 감지하며 시대를 예측하고 선도하려는 노력에 헌신하고 미학적 노

46) 김광균, 오영식·유성호 역, 『김광균 문학전집』, 소명출판, 2014, pp.517-518.

력을 경주하였던⁴⁷⁾ 시인 오장환은 과거 자신이 『붉은 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문학과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평가와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작품에 부끄러움과 회의를 느끼면서도, 그러한 체제와 비판을 낳은 북으로 또다시 향해야만 했던 이 모든 사실의 바탕에는 한 젊은 청년의 어깨로 감당하기 힘든, 소용돌이 같은 우리 굴곡진 현대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붉은 기』의 문학성과 예술성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시에 묘사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해는 오장환의 소련 내에서의 전기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그리고 1948년과 1949년 사이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단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 시집에서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오장환이 그러한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중심에 시대의 증언자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로소득을 즐기고 책임없는 비난을 일삼던 그 때의 필자가 인간 최하층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구할 수 없는 곳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으로 시를 영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나 사는 곳』의 시절, 727)

유일한 목숨과도 같이 시를 갈망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오장환, 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8년, 시인의 시구처럼 그의 무덤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어서 오길 희망한다.

47) 김지선, 『오장환의 윤리식 연구』, 『人文論叢』 3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pp.110-111.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재용 편, 『오장환 전집』, 실천문학, 2002.

김학동 편, 『오장환전집』, 국학자료원, 2003.

2. 논문 및 단행본

기광서,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스티코프의 활동』, 『중소연구』 26,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p.162.

김광균, 오영식·유성호 역, 『김광균 문학전집』, 소명출판, 2014, p.347.

김동석, 이희환 역, 『김동석 비평 선집』, 현대문학, 2010, p.220.

김용직, 『열정과 행동 - 吳章煥』, 『한국현대시인연구 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517.

김응교, 『이찬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7, pp.188-189.

김지선, 『오장환의 윤리의식 연구』, 『人文論叢』 3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pp.110-111.

김학동, 『오장환 評傳』, 새문사, 2004, pp.321-322.

도종환, 『오장환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86-187.

박윤우, 『오장환 시집 『붉은 기』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에 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40, 한중인문학회, 2013, p.75.

서정주, 『서정주 문학 전집, 5권』, 일지사, 1972, p.117.

안문석, 『북한 현대사 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 p.288, pp.312-315.

오성호, 『임화의 월북 후 활동과 숙청』, 『현대문학의 연구』 21,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pp.498-499.

우대식, 『해방 후 월북 시인의 행방』, 『한국문학과 예술』 12,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p.90, 103.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 자료집(이복편/1945~1950)』, 태학사, 1993, p.383.

이지수, 『소련군 철군 과정 연구-시론』, 『사회과학논총』 26,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pp.121-126.

이태준, 『이태준 문학전집4 소련기행·농토·먼지』, 깊은샘, 2001, pp.11-12, pp.47-48.

- 이희춘, 『오장환연구』, 『한국언어문학』 49, 한국언어문학회, 2002, pp.406-409.
- 임유경, 『‘오빠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p.234.
- 임지연, 『오장환 시에 나타난 ‘병든 몸’의 의미와 윤리적 신체성』, 『批評文學』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pp.402-403.
- 한국현대문학자료총서편집부, 『韓國現代文學資料叢書 17』, 1987, p.441, pp.492-493.
- 허만위, 『역사연구: 하바로프스크의 김유천거리에 얹힌 역사』, 『北韓』 323, 북한연구소, 1998, pp.94-95.
- 홍성희, 『‘이념’과 ‘시’의 이율배반과 월북 시인 오장환』,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pp.65-112.
- 황운철, 『오장환의 시 연구』, 『우리말 글』 7, 우리말글학회, 1989, p.214.
- Иванов А.Ю. Особен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рактовк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Красной армией, Корея: 70 лет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М.: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уки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15, p.16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15703>(검색일: 2017.11.10.)

<https://www.ay-company.ru/za-osvobozhdenie-korei>(검색일: 2018.01.17.)

Abstract

A study on the Soviet travel poems “Red flag”

Kim, Tae-ok

This paper analyzes the travel purposes of poet Oh Jang-Whan,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in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to the Soviet Union and traces his steps there by analyzing a collection of poetry entitled the “Red flag”(1950), which functions as a key text for the biographical research, in the way that is a result of travel to the Soviet Union and clearly reflects the purposes of his writing. The “Red flag,” written as a result of Oh Jang-Whan’s travel to the Soviet Union for various purposes, contains the poet’s personal impress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congruence’s of political ideology of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hrough the form of a circular composition of the departure and return, in other words, returning to the first place, Oh Jang-hwan had time to confirm to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mission and the poetic ideal as a poet. The “Red flag” has value not only as the study materials of Oh Jang-Whan’s personal biography, but also as his historical records, in which he is able to verify pieces of occurred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right after it’s liberation and between the years 1948 and 1949.

Key Word: Oh Jang-Whan, Red flag, Biography, Ideology, the Soviet Union, Moscow, Siberia

김태옥

소속 : 충북대학교 전임연구원

전자우편 : ok3814@daum.net

이 논문은 2018년 01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03월 0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03월 09일 게재 확정됨.